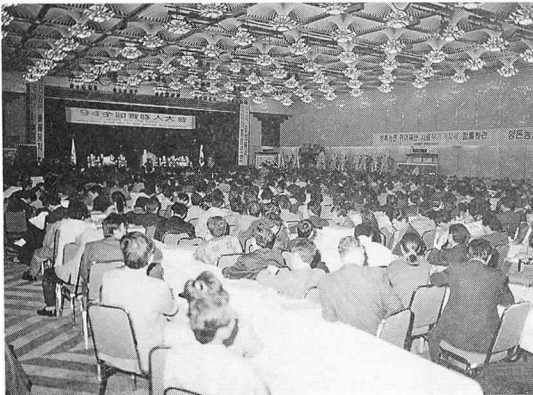


# 협회소식

## '94 전국양돈인대회 성료

- 각 4개항의 결의문 및 대정부 건의문 채택



본회는 지난 11월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UR이후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94 전국양돈인 대회를 개최했다.

본회가 주최하고 퓨리나코리아(주)·미원(주) 후원한 이날 대회는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수산위원 등 10여명, 박철우 축협중앙회부회장 등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장 50여명과 전국 지역 양돈 대표자 1,600명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UR이후의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양돈인들의 단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양돈인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 결의 등 4개항의 결의문과 자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축산업 자

조금법의 입법화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동용회장은 대회를 통해 「UR협상 타결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이제 축산업계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국제경쟁 환경에 처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총 동원해 기필코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전회장은 UR이후의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속 적용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전형 양돈산업 육성 ▲연도별 돼지고기 자급률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무임승차자 없는 명실상부한 자조금제도 법제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토지 및 산지이용 규제 완화와 축사건축 규제의 대폭 해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민자당 대표위원은 축사를 통해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양돈농가들의 숙원사항인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훈 교수는 기념특강에서 ▲UR협상의 평가와 반성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장단기 농정개혁 시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동용회장은 양돈산업 발전에 공이 큰 하오조 경남도협의회장·전재명 전남도협의회장·김상호 이사에 양돈대상을, 정문걸회원(양평지부) 등 14명에게 모범양돈농가상을 수여했다.

또한 손상민(김해군 축산과장)씨에게 특별공로상, 김기용(주)퓨리나코리아 대표이사과 유명학(주)미원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KOEX에서 개최하는 '94 서울국제농림축산 기계 박람회를 관람하였다.(관련 기사 54쪽)

## 본회 사료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국회 입법 청원

본회는 지난 11월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사료 및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영진의원(민주)과 정창현의원(민자), 재무위원회 박태영의원(민주)이 소개의원으로서 서명한 입법청원서는 김영진의원과 정창현의원 이날 국회 이종률 사무총장을 방문, 제출했다.

〈표〉 본회가 입법 청원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6호(생략)	제7호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축산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제2조)에 의한 사료나, 약사법(제7조의 6)에 의한 동물약품 중 축산용 약품 다. 농촌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재

본회는 입법청원서에서 “60만 축산농가의 12년이상 숙원이며 그동안 100여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한 사료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관련내용 74쪽)

## 인천지부 “한국 양돈산업의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본회 인천지부(지부장 : 정진섭)은 11월 25일 인천시내 소재 갤럭시호텔 크리스탈룸에서 “한국 양돈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양돈경영 안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회 회원과 인천시내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양돈산업 생존전략(정영철박사-정P&C연구소장)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돈질병(안수환박사-가축위생연구소)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사료공업(주), 천흥제일사료, (주)미원, 경북중돈장이 협찬했다.

## 안성지부 창립 11주년 기념식 개최

본회 안성지부(지부장 : 박광수)는 10월 20일 안성시 소재 안성부페에서 이명복 도협의회장, 박광수 지부장, 지부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돼지고기가 쿼터제로 2만 2천톤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게 됨에 따라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부회원간의 단합된 힘으로 생산비절감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11월 11일 개최되는 '94 전국 양돈인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광수지부장은 지부발전에 공로가 큰 신우철 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무안지부 전남도지정 육류 직판장 개설

본회 무안지부(정형기) 회원들이 설립한 무안양돈영농조합법인은 11월 19일 무안읍내에 전라남도 지정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본회 무안지부 회원들이 사육하는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우고기와 닭고기도 판매된다.

무안양돈영농조합법인은 11월 19일 직판장 개업식을 가졌다.

### 상주지부 돼지고기 직판장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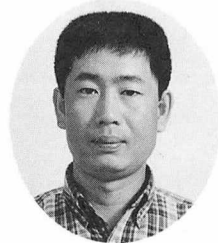
본회 상주지부(지부장 : 이재철)는 11월 23일 상주 시내 풍물거리에 돼지고기 직판장을 개설했다.

상주지부는 이날 조옥봉 도협의회장과 회원, 관련기관·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판장 개업식을 가졌다.

상주지부는 직판장을 통해 회원들이 사육한 비육돈을 싸게 공급해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 남제주지부장에 문성수씨 선출

남제주지부는 지난달 10월 17일 지부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강창우 전임 지부장 후임으로 문성수회



문성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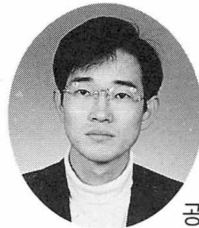
원을 새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지부임원도 개편했다.

전임 강창우 지부장이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지부장 선출에서 신임 지부장이 된 문성수지부장(35세)은 제주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에서 1천두 규모의 제영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제1검정소 직원 채용



한항수 씨



공지운 씨



박규선 씨

본회 제1검정소는 지난 11월 1일과 11월 7일 사무실과 현장(돈사)에 한항수(27)씨, 박규선(26)씨, 공지운(27)씨를 새로 채용했다.

한항수씨는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세왕중돈장과 천안농장에서 근무하였다. 박규선씨와 공지운씨는 상지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예정자이다.

한편 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진용진씨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